

人文論叢

83권 3호

2026년 8월

기획 논문

기획의 말

/

환경인문학이란 무엇인가

이번 호의 특집은 “환경인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기획되었다. 우리는 인문학연구원 집담회의 지원으로 2025년 11월에 “환경인문학이란 무엇인가: 의미, 가치, 서사”라는 제목의 제1회 환경인문학 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그때 했던 발표 가운데 일부를 수정·보완한 논문을 여기에 기획논문으로 게재한다. 이 학술대회를 주최한 환경인문학 리딩 그룹은 2023년 3월부터 모임을 이어 오고 있으며, 지난 학술대회와 이번 공동 연구는 환경인문학의 정립과 확산을 위해 우리가 하고 있는 작업에 대한 이론적인 성찰 및 본격적인 학술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첫 결실이다.

이 연구는 점차 심화되고 있는 인류세의 기후·생태 위기 속에서 인문학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그동안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수행되어 오던 연구를 하나의 개념 아래 연결하고 기존의 흐름을 검토하며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집단적 시도이다. 우리는 이 공동 연구를 통해 환경인문학이라는 분야를 학제적으로 탐구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 및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 제시하고자 하였다.

여기 실린 세 편의 논문은 ‘환경인문학’이라는 개념과 역사에 대한 검토, 그리고 그 흐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영역에 속하는 생태환경사와 생태비평 분야의 논문 각각 한 편씩으로 이루어진다.

조 향의 논문 「환경인문학이란 무엇인가」는 인류세의 기후·생태 위

기 속에서 인문학은 어떤 도전을 받고 있으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왜 ‘환경인문학’과 같은 개념이 필요한가 등을 핵심 질문으로 하여 환경인문학의 개념과 간략한 역사, 주요 쟁점과 몇 가지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는 일종의 총론적인 성격의 글이다. 그동안 환경철학, 생태환경사, 생태비평 등 인문학의 여러 분과학문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해 온 연구와 교육의 흐름을 아우를 수 있는 개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논문은 ‘환경인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존재해 왔고 또 현재 행해지고 있는 많은 연구와 교류,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이 흐름을 더 심화하고 확장하고자 한다. 학제적 성격, 경계 넘기, 느슨한 연결과 실험 정신, 메타학문적 특징, 개입과 참여 지향 등을 핵심적인 특성으로 하는 환경인문학은 기후·생태 위기의 과학적 측면을 인간화하기 위해, 그리고 인간을 탈중심화하기 위해 요청된다.

이 논문은 또한 몇 가지 주요 쟁점들을 통해 전통과 변화, 연속성과 새로움, 특정 학문 분야 고유의 성격과 학제적 성격, 인간화와 탈인간화, 건설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 기후·생태 위기의 긴급성과 ‘느린 학문’, ‘생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 사이의 긴장 속에 있는 환경인문학의 다면적인 성격을 조명하며, 서구 중심성을 벗어나 지역적이고 상황적인 환경인문학을 만들어 갈 과제도 제기한다. 인류세의 ‘새로운 인간 조건’ 아래 등장하게 된 이 새로운 연구 분야에서는 기존 지식의 재사유, 재상상, 재정의, 재배치, 재조직화, 그리고 다시 이야기하기가 요청되며, 지식 전달이나 소통, 교육의 새로운 방식 역시 필요하다. 여러 긴장과 모순, 다양성 속의 환경인문학은 기후·생태 위기의 사회적이고 인간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과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필수 불가결하며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리라 전망한다. 이 논문은 앞으로 함께 해 나갈 새로운 방향의 탐색을 위한 기본적인 이론적 성찰의 시작이자 이 공동 작업으로의 초대라는 의미를 갖는다.

고태우의 논문 「체제 전환의 인문학으로서 생태환경사: 위기의 역사화

와 미래의 상상」은 자본주의와 화석에너지 체제, 대량생산·대량소비에 기반을 둔 현대 문명이 이제 지구의 행성적 한계에 직면한 사실에서 출발한다. 문명 자체를 갉아먹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많은 선택들이 지적했듯이, 인간과 자연의 관계, 발전과 자유에 관한 관념을 재구축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존 학문 체계 전반을 재검토할 필요도 있다. 특히 인문학 영역에서는 인간만이 아니라 비인간 존재와 지구시스템을 함께 사유하며 생태문명으로 이행할 ‘전환을 위한 인문학’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고태우는 생태문명으로서의 체제 전환을 함께할 실천적 역사학으로서 생태환경사의 연구와 교육 방향을 탐색하였다.

먼저 연구의 방향으로 첫째, 기후변동과 사회의 대응, 화석에너지 체제와 대가속, 환경오염과 피해의 불평등을 추적하여 현재 위기의 역사적 경로와 책임 구조를 밝힐 수 있다. 둘째, 인간 너머의 존재(more-than-human)를 역사의 행위자로 소환하여 행성의 역사가 인간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명과 물질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었음을 드러낼 수 있다. 셋째, 과거 사례를 통해 현재의 체제를 상대화하고 커먼즈의 활용, 순환경제 및 탈탄소 사회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고태우는 교육을 통해서 기후·생태위기를 역사적으로 이해하고 사회 갈등과 권력관계, 회복력을 분석하는 역사 문해력을 길러 생태시민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비인간 존재의 행위자성을 인식하는 다종 감각을 함양하고, 자연과학·사회과학·문학·예술을 결합하여 생태 감수성을 키우는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으로 그는 현재의 위기 속에서 파국의 감각을 익히면서도 인간과 비인간의 대응과 회복 가능성을 함께 제시하고, 복수의 미래 시나리오를 생각하며 현재의 선택이 미래를 바꿀 수 있음을 성찰하는 기회를 마련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처럼 생태환경사는 과거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 너머의 존재가 함께 거주할 미래를 설계하는 체제 전환의 인문학으로 확장될 수 있다.

나온하의 논문 「사실주의극과 생태적 상상력: 루시 커크우드의 『아이

들』과 기후위기의 무대화」는 최근 영미극장의 생태담론을 지배하는 반사실주의적 경향 속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사실주의극이 지닐 수 있는 생태비평적 가능성을 재검토한다. 공연 연구에서 본격적인 생태비평은 현대드라마의 근간을 이루었던 자연주의 및 사실주의가 인간중심적 재현의 관습을 재생산해 왔다는 비판에서 출발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장소특정적 공연, 탈극장적 실천, 비인간 행위자와의 공동 수행 등을 제시해 왔다. 이에 대해 이 논문은 생태적 전환과 기존 극작술을 단순한 대립항으로 놓기보다, 친숙한 연극 형식을 통해서도 관객이 기후위기의 정서와 감각을 경험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기존의 극문법이 어떻게 변형되고 갱신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제안한다.

저자가 예시로 드는 『아이들』은 원전 사고 이후의 세계를 배경으로 하지만, 재난의 스펙터클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대신 지극히 일상적인 공간과 인물들의 행위를 통해 인간 너머의 세계의 위기를 드러낸다. 저자는 작품의 사실주의적 장치들이 기후위기와 핵 재난을 배경화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인간관계와 일상의 조건 속에 이미 침투해 있음을 감각하게 하는 생태적 드라마투르기로 작동한다고 읽어낸다. 특히 침식되고 기울어진 해안가 주택은 노년의 신체, 방사능, 사물, 자연이 얹힌 불안정한 생태적 ‘집’으로 제시된다. 이 공간에서 은퇴한 세 과학자 사이의 해묵은 갈등은 집 안으로 침투한 외부의 재난과 교차하며, 인간 행위자들의 드라마가 비인간 세계와 맺는 생태적, 윤리적 관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드러낸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논문은 사실주의극을 생태적 상상력을 가로막는 낡은 양식이 아니라, 스스로의 한계를 드러내는 동시에 극장 안에서 생태적 전환의 조건을 마련할 수 있는 형식으로 사유한다.

이 세 편의 논문은 앞으로 개인적으로 또 공동으로 더 의식적이고 본격적으로 환경인문학을 연구하고 교육하려는 우리의 탐색과 실험의 작은 이정표이다. 계속해서 이 방향의 노력과 실험이 이어지고 또 다른 창발과 새로운 사건들을 통해 더욱 풍요로운 결실이 있으리라 기대하며, 소박한 첫

시작을 함께하고 또 계속 이어 온 분들 모두를 생각한다.

고태우, 나은하, 조 향

